

# 플라스틱 필름 해외 공급으로 매년 30% 매출 신장 가격경쟁력으로 동남아에서 중남미까지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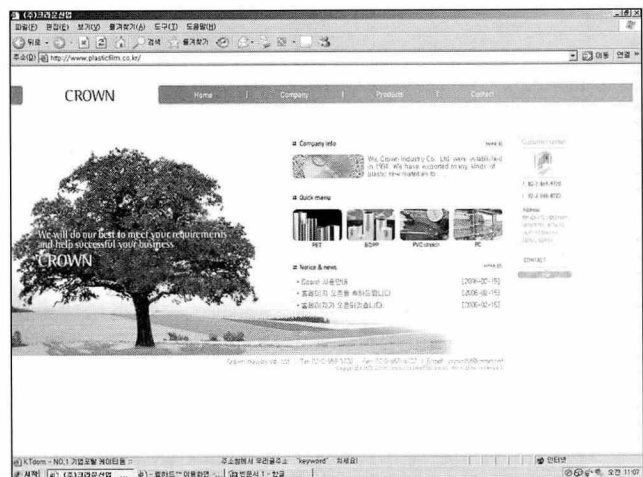


이 종 명  
(주)크라운산업 대표이사

2004년 코트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인 미국의 플라스틱 이용도는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그 소비가 높아 제품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산업을 통해 플라스틱을 충당하기도 하지만, 해외 개도국 등의 공격적 해외 마케팅이나 환경 보호 등의 요인으로 해외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가운데, 산업용 플라스틱 시트, 필름은 대미(對美) 수출 유망 품목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 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국, 멕시코, 일본 등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1994년 설립 이후, 플라스틱필름, 플라스틱 시트, 플라스틱 레진 등을 해외에 공급하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



▲ (주)크라운산업 홈페이지(www.plasticfilm.co.kr)

# CROWN

하고 있는 수출입 포장자재 전문업체 (주)크라운산업(대표이사 이종명)을 찾았다.

1987년 삼영화학공업(주)에 입사하면서 8여년간 수출업무를 담당, 해외시장 동향을 파악하며 경력을 쌓은 이종명 대표이사는 1994년 현재의 서울 구로구에 크라운을 설립, (주)크라운산업으로 법인을 전환, 이번달 7일로 창립 12주년을 맞게 됐다.



▲ (주)크라운산업이 취급하고 있는 필름

현재 (주)크라운산업은 OPP필름을 비롯해, CPP, PET, NYLON, PVC 스트레치 필름 등 각종 플라스틱 필름 뿐만 아니라 특수지 등 포장용 원자재를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중남미, 러시아 등 15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무역종합상사이다.

국내 유수의 OPP, CPP, PET, NYLON필름사의 제품을 매입, 각 사별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해외시장의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있는 (주)크라운산업은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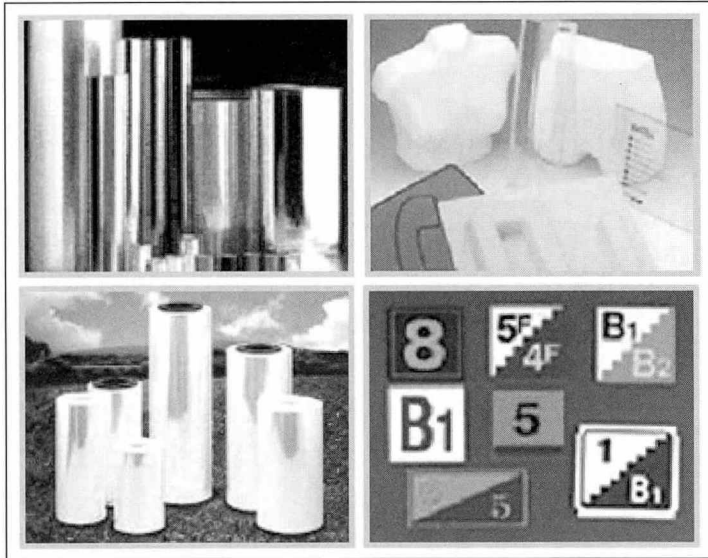
호평을 받아 인도네시아 지역의 경우 전체 PVC필름의 70% 이상을 공급하는 등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여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 전선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이종명 사장은 “포장은 환경과 시대가 변함에 따라 소재와 기술이 바뀔 뿐, ‘포장’이라는 테마 자체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포장산업의 매력을 밝혔다.

창립 이후 매년 30%의 매출 신장을 지속하고 있는 (주)크라운산업은 2004년 150억원의 매출을 달성, 9명

### (주)크라운산업 수출 제품

Plastic film	(BOPP film, PET film, PVC stretch film, CPP film, NYLON film, E.T.C)
Plastic sheet	(PC sheet, PMMA sheet, APET sheet, PETG sheet, PP sheet, E.T.C)
Special Paper	(Vinyl paper, Bonded leather, Acrylic paper, Cloth paper, E.T.C)
Plastic resin	(PET resin, PA resin, PVC resin, PP resin, E.T.C)



▲ (주)크라운산업이 수출하고 있는 필름제품

의 임직원들이 전천후 활약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기존서비스 물량을 강화시키고 거래선을 개척하는 등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작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주)크라운산업 이종명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력은 한번 영업선이 확보된 업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주)크라운산업은 플라스틱 필름의 수출과 더불어 일본 토요보(Toyobo)社

의 나일론 필름을 수입,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40여군데 업체에 공급, 신규사업 창출에 주력하기도 했다.

이종명 사장은 “향후 나일론 필름 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터 필름, 특수 필름으로까지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플라스틱 필름 수출입을 통해 국내 업체의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명 사장은 “국내 포장산업이 산업화시대를 지나 무

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발전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며 “국내 포장산업의 기술 및 정보 공유가 미비한 것이 발전의 장애가 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주)크라운산업은 (사)한국포장협회 신입회원이 되었다.

(주)크라운산업은 협회 가입을 통해 회원사 간의 미팅 기회를 통해 국내 뿐만 아닌 경쟁력있는 해외 포장시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종명 사장은 포장업체간의 폐쇄성을 지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보다 훌륭한 기술과 업체에 대해 받아들이는 포장문화가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내외 플라스틱 필름 수출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에 주력해 온 (주)크라운산업이 포장산업의 수출활로 모색에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